



##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 한밤의 정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

소담스런 꽃향기가 황홀하게 퍼지는 봄밤의 정원은 생각만으로도 낭만적인 기분이 들게 한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밀화라도 약속돼 있다면 그보다 더 짜릿한 순간은 없을 것이다. 어둡지만 결코 음산하거나 무섭지 않은 봄밤의 정원에서 이제 곧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일어날 거라고, 한번 지켜보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 서곡과 함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시작된다.

모차르트가 1786년에 작곡한 이 오페라는 제목 그대로 피가로라는 인물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다. 주인공 피가로와 수잔나가 자신들 앞에 펼쳐진 모든 난관을 재치 있게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파란만장하고도 희극적으로 펼쳐진다.

피가로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신의 신혼방 치수를 재고 있다. 그의 사랑스러운 약혼녀 수잔나는 곁에서 결혼식에 쓸 베일을 손질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 사랑의 작은 이중창을 부른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수잔나에게 초야권(初夜權)을 행사하려는 그들의 주인, 백작의 흑심을 알아채고는 이내 착잡한 심정이 된다.

초야권(初夜權)이란 중세 유럽에서 봉건영주가 자신의 하인이나 영지 소작인들의 결혼 때 신랑보다 먼저 신부와 동침할 수 있었던 권리를 말하는데 이 황당한 권리는 모차르트 시대에도 이미 사문화된 귀족의 특권이었다. 그런데도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피가로와 수잔나의 주인 알마비바 백작이 터무니없이 초야권을 들먹이고 있는 것은 당시 귀족들의 전횡과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상징하려는 장치다.

'피가로의 결혼'은 사실 오페라치고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데다 여러 사건이 얽혀 생각보다 이해가 어려운 작품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끌어 가는 힘은 바로 모차르트의 음악이다. 이 작품에서도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특유의 재기발랄하고 유쾌한 선율에 고전 시대 음악이 보여주는 균형미는 복잡한 인물 관계와 사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등장인물의 개성을 부각한다.

'피가로의 결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오페라의 음악을 들어보면 익숙함에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다. 할리우드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죄수인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은 갑자기 전축을 크게 튼다. 그 음악이 창공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한 마리 새처럼 교도소 안에 널리 울려 퍼질 때, 동료 수감자들의 어리둥절하면서도 경탄해 마지않는 표정은 이 영화의 백미 중 하나다. 회색 공간 안 죄수들의 탄성을 자아낸 음악, 교도소 담장 넘어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듯 한 여성 이중창도 이 작품에 나오는 '편지의 이중창'이다.

'편지의 이중창'은 변심한 백작을 골탕 먹이고, 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수잔나와 백작 부인이 음모를 꾸미면서 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이중창이다. 같은 소프라노 배역이라도 하녀인 수잔나는 가볍고 밝은 음성의 소프라노 레제로(Soprano leggiero)가 맡고, 백작 부인은 좀 더 성숙하고 우아한 목소리의 리릭 소프라노(Lyric Soprano)가 맡아 배역의 특성을 살린다. 이처럼 오페라는 시각적인 요소뿐 아니라 가수의 음색만으로도 인물의 개성 표현이 가능하다. 피가로와 백작 역시 같은 바리톤이지만, 피가로에게는 소탈하고 서민적인 멜로디가 백작에게는 귀족적이고 중후한 멜로디를 쥐 신분과 성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방해도 불구하고 이뤄져 버린 피가로의 결혼에 낙담해 있던 백작은 유혹의 말을 담은 수잔나의 가짜 편지에 속아 희희낙락 밤의 정원에 나타난다. 수잔나를 오해한 새신랑 피가로도 분노를 불태우며 정원으로 온다. 밤이슬을 머금은 꽃나무들 사이에서 어리석은 남자들은 망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여자들에게 용서를 빌며 무릎을 꿇는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항상 라일락 향기가 가득한 봄밤이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감상하고 싶다. 처음 이 오페라를 접했던 계절이 5월인 탓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작품의 주옥같은 음악들이 달콤한 미풍이 부는 봄날의 밤과 너무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